

# 금융당국 규제 약발 먹혔나... 저축은행 수신 경쟁 '주춤'

예대율 규제 비용 완화 영향  
대출금리 인상도 일시적 '쉽표'  
조달비용 절감, 대출여력 두드러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 비용을 완화한 영향이다.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예금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뜻밖의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년물 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5.45%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평균 예금 금리가 2주째 5.4% 선에서 당락을 반복 중인 모습이다. 지난달 저축은행 업계는 1년물 예금 상품에 연 6.5%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등 업권 간 수신 경쟁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연 6% 선에 머물고 있다.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 인상을 멈춘 이유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 비용을 완화한 가운데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주춤하고 있다. /뉴시스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100%에서 110%로 변경했다. 예대율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은행권과 저축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수신하지 않더라도 기업 등에 대한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치열한 수신 경쟁

에 '쉽표'가 찍힌 셈이다.

그간 은행권이 예·적금을 통해 수신 경쟁을 펼친 이유는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은행을 통해 간접 조달 방식을 선택한 것. 은행들 또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예·적금을 통한 자금을 조달에 힘쓴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시장에 돈이 마르는 '돈맥경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에 대출 여력을 늘리면 시장에 자금이 순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동안 대출금리 인상 또한 더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조달 비용이 상승했지만,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 수신 경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대출 금리 또한 주춤할 전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시중에 있는 자금을 모두 흡수하는 모양새였다"며 "시장에 자금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여전채나 회사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저축은행은 뜻밖의 호재다. 조달비용 절감과 대출 여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통상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1~1.5%포인트(p)의 예금금리를 추가로 제공했다.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저축은행 또한 함께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시중은행이 수신 경쟁을 중단함에 따라 저축은행 또한 예금금리 인상을 통해 애써 조달 비용을 높일 필요가 사라졌다.

대출 여력이 생긴 것 또한 긍정적인 로다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불거짐에 따라 대출에 제동이 걸린 저축은행에 여유가 생기면서 건전성을 회복할 기회가 생겼다. 고신용 차주 중심의 대출을 늘려 환급 리스크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견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를 통해 어려워진 상황을 고신용 차주 대상 대출을 늘려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예금주들 또한 걱정을 덜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잠자는 신용카드 증가세... 카드사 부담 ↑

4분기 연속 늘어 총 1464만장 달해  
보안 등 소비자·카드사 부담 가중  
KB국민카드만 홀로 비중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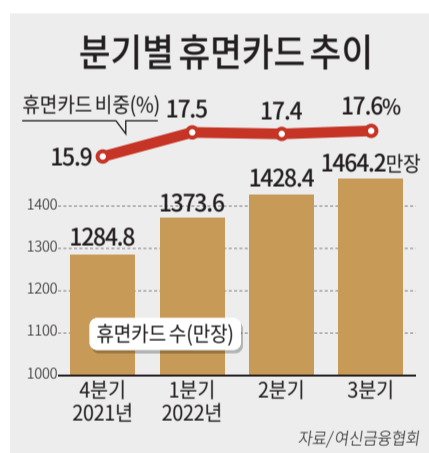
잠자는 신용카드가 4분기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까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가 4분기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 휴면 신용카드는 1464만2000장으로 전체 카드 중 17.6%를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 1284만8000장(15.9%)을 시작으로 ▲1분기 1373만6000장(17.5%) ▲2분기 1428만4000장(17.4%)에 3분기까지 증가세다.

휴면카드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현금성 마케팅 과열, 신용카드 발급량 증가 등이 꼽힌다.

신용카드 발급량이 많으면 휴면카드도 늘어난다.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중 휴면카드 증가량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카드다. 지난 2분기 대비 12만장 늘어 175만3000장이다. 이어 ▲롯데카드(171만5000장) ▲현대카드(166만7000



장) ▲KB국민카드(166만2000장) ▲삼성카드(144만6000장) ▲우리카드(131만7000장) ▲하나카드(117만5000장) 순이다.

PLCC상품과 현금성 마케팅 또한 휴면카드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PLC C상품의 경우 특정 상품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 카드 사용 또한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현금성 마케팅의 경우 그간 체리피커와 휴면카드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 받아왔다. 일부 소비자들이 현금성 혜택만 챙긴 뒤 카드 사용을 멈추는 행태를 보이는 것.

카드사들 중 유일하게 휴면카드비중이 줄어든 곳은 KB국민카드다 2분기

174만장 대비 7만8000장(4.4%) 감소한 수치다.

휴면카드 증가는 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지난 2014년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 이후 휴면카드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유출이 발생한 2014년 초 1300만장을 기록한 휴면카드는 6개월 사이 990만장으로 310만장이 넘게 감소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금융시스템 지연, 이용자 간 정보 섞임, 악성코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카드사 입장에서 휴면카드 증가는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온다. 발급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판에 투입한 마케팅, 상품개발, 발급 비용 등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휴면카드 자체로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대규모 정보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의 손해는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드사 또한 기존 신용카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한은-NH농협카드, 지역경제 분석 '맞손'

카드 빅데이터, 경제동향 파악 협력

한국은행과 NH농협카드가 지역경제 분석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은은 NH농협카드와 빅데이터 기반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기관은 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업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신용카드 빅데이터 지원, 기타 경제동향을 파악한다는 전략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분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은 지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왼쪽)가 한국은행-NH농협카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본부도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 '핀테크 워크' 성료... 1737억 투자유치

핀테크기업 35개사 참가

올해 열린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2'에 75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IR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핀투비'는 총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상담을 통해 34개 핀테크 기업은 170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린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2'에 7500명이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총 35개 기업은 173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IR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핀투비는 총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핀투비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특정기업의 매출채권을 조회하고, 대출 및 상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급망 금융플랫폼을 운영한다. 그 외 34개 기업은 투자상담을 통해 총 170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핀테크 취업 멘토링에서는 청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181건의 핀테크 취

업상담이 진행됐다. 핀테크 기업(7개), 금융회사(6개), 유관기관(3개) 등의 인사담당자 및 핀테크 관련 부서 실무자가 자사 채용정보, 직무 등을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157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그중 16개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대상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고객의 건강상태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언더라이터'가 수상했다. 이 밖에도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2는 송금·결제, 신용평가, 인슈어테크, 대출비교, 자산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보안·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문조사결과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핀테크 이해도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핀테크 워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향후 핀테크 활성화,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관련정책에 다 각도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 KB국민銀, 고객 챗봇 서비스 전면 개편

빠른 AI 상담 등 편의성 제고

KB국민은행이 고객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미래컨택센터(FCC·Future Contact Center) 챗봇'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FCC 챗봇'은 고객이 문의한 내용을 AI가 분석해 답변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KB스타뱅킹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개편으로 챗봇에 세대별 맞춤형 상품·이벤트를 추천해주는 배너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

다. 스타프렌즈를 이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를 개선하고 클라우드 구축 및 접속용량을 확대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계열사의 고객센터를 클라우드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컨택센터 인프라로 전환하는 'KB FCC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FCC 챗봇'을 시작으로 챗봇을 통해 계열사별 업무상담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유리 기자 yul115@